

# 대만에 지면, 2021 본선직행권 박탈

## WBC 대표팀, 대만을 깨야 하는 이유

오늘 1R 최종전 패배면 A조 꼴찌  
조 4위는 2021년 대회 예선 치러야

최악의 시나리오는 1라운드 탈락 뿐만이 아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한국야구가 본선자동진출권 박탈이라는 망신을 당할 위기다.

한국대표팀은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A조에서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에 패했다. 만약 9일 대만과 1라운드 최종전에서 패한다면 A조 꼴찌(4위)로 2017 WBC가 끝난다.

문제는 각조 4위는 다음 대회 본선자동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6년 16개 국가가 본선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단 4개국만이 1라운드 무대를 밟았다.

2월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이 예선을 치러 호주가 1위로 본선진출권을 획득했다. 3월에는 멕시코 멕시코칼리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각각 예선전이 치러졌다.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와 독일, 체코, 니카라과, 파나마시티에서는 파나마, 프랑스, 콜롬비아, 스페인이 맞붙었다. 콜롬비아는 홈 파나마를 꺾고 본선에 올랐고, 멕시코에서는 홈팀 멕시코가 1위를 차지했다. 9월에는 미국 브루클린에서 이스라엘, 영국, 브라질, 파키스탄이 마지막 한 장 남은 본선진출권을 놓고 격돌했다. 1위는 A조 돌풍의 주인공 이스라엘



안방에서 2연패를 당한 한국이 이제 9일 대만과 1라운드 최종전만을 남겨놓고 있다. 2라운드 진출여부와 관계없이 대만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대회 본선진출권 때문이다. 8일 고척돔에서 마지막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코칭스태프.

이었다.

만약 한국이 대만에 패해 3전 전패를 기록한다면 2021년 WBC를 위해 예선전을 치러 본선진출권을 획득해야 한다.

만약 예선을 치른다면 한국야구의 전력적인 문제는 크지 않다. 단, 개최 장소와 시기에 따라 선수선발에 여러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자칫

유망주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했다가 이번 대회 이스라엘 같은 북병을 만나 탈락한다면 WBC 본선무대 자체를 밟지 못할 수도 있다. WBC는 2013년 대회부터 참가팀을 28개국으로 확대해 예선을 치르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 강팀이 예선으로 떨어져 한국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절박한 상황은 대만도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민병현(두산)은 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훈련을 마친 후 “4년 후 내가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만에도 지면 예선부터 치러야 한다고 들었다. 감독님도 후배들을 위해 꼭 이겨달라고 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호 기자 rush@donga.com

## 한국 1R 탈락 확정

네덜란드 끝내기 밀어내기 불넷…대만 제압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한국의 1라운드 탈락이 확정됐다.

네덜란드는 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2번째 경기에서 9회말 무사 만루서 주릭스 프로파르의 끝내기 밀어내기 불넷으로 대만을 6-5로 격파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A조는 2승을 거둔 이스라엘과 네덜란드가 2라운드 진출권을 획득했다. 9일 낮 12시에 맞붙는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경기에서 승자는 3승으로 A조 1위가 된다. 패자는 2승1패로 2위가 된다. 이날까지 2패를 중인 한국과 대만은 9일 오후 6시30분 최종전을 치른다. 여기서 이기면 1승2패로 A조 3위, 패하면 3패로 조 4위가 된다.

만약 이날 대만이 네덜란드를 잡는다면 최종일에 한국에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다. 선취점은 네덜란드가 뽑았다. 2회말 2사 1·3루서 다센코 리카르도가 1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대만은 3회초 무사 2·3루 찬스에서 상대 선발투수 사이어 자젠스의 폭투로 동점을 만들고, 이어진 무사 3루서 린즈성의 희생플라이로 2-1로 역전했다. 네덜란드는 4회말 3점을 뽑으며 앞서나갔지만, 대만은 5회초 장즈하오의 우월 2점홈런으로 4-4 동점을 만든 뒤 계속된 무사 1·3루서 린이취엔의 내야방울 때 1점을 뽑아 5-4로 리드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8회말 2사 3루서 디디 고리우스의 1타점 2루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9회말 무사 만루서 프로파의 밀어내기 불넷이 나오면서 6-5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으로선 모든 경우의 수가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고척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 양현종 호투가 절실한 까닭

국내용 불명예·대만전 명예회복 기회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최악의 참사로 남게 됐다. 그러나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켜야 한다. 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1라운드 마지막 경기. 대만전은 명예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대만전 패배는 2021년 5회 대회에서 한국을 본선직행이 아닌, 지역예선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전 선발투수는 대표팀 원투펀치 중 한 명인 양현종(29·KIA)이다. 사실 김민식 감독 등 코칭스태프는 1라운드에서 안정적인 '2승 전략'을 선택했다. A조 최강으로 평가받던 네덜란드전은 접어두고, 이스라엘과 대만에 승리를 얻어 2라운드 일본 도요행을 확정짓겠다는 계산이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투수 장원준과 양현종을 나란히 이스라엘, 대만전에 배치한 이유다. 물론 이스라엘전에서 출전 끝에 패배하며 계산은 완전히 어그러졌다.

양현종으로서도 자존심이 달려있는 경기다. 이번 WBC를 제외하면, 국제대회 참가는 2010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전부였다. 2015 프리미어12 등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합류가 불발되는 불운이 있었다.

양현종 스스로도 WBC에 대한 의욕이 강했다.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에 이번 대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일찍 몸을 만들면서 '슬로 스타터'라는 주변의 우려를 지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대만 상대로 잘 던져야 할 이유도 있다. 양현종



양현종은 9일 대만과 1라운드 3차전 선발투수다. 조 4위가 되면 차기 대회에서 예선 라운드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양현종의 어깨가 무거워 이유다.

고척 |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 대만을 상대했다. 대만과의 예선 2차전에 선발등판해 4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결승에서 대만과 다시 만났을 때 중간계투로 나와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강판됐다. 2-3으로 역전된 7회말 등판해 2루타와 안타를 연거푸 맞고 무사 1·3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후속투수가 실점을 막았지만, 양현종으로서 자존심이 상할만한 순간이었다.

그는 대회에 앞서 “인천아시안게임 대만전에서 다소 부진했다. 만약 WBC에서 대만과 다시 만나면, 더 좋은 공을 던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너에 몰린 대만도 천관위와 귀진원, 원투펀치가 함께 한국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패로 최악의 상황에 몰렸지만, 자존심과 차기 대회를 위해 양현종의 호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 황재균 시범경기 2호 홈런…김현수 멀티히트

스프링캠프 초청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거의 꿈에 도전하고 있는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이 자신의 시범경기 2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황재균은 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파닉스 캐럴백센터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시범경기에서 7번 3루수로 선발출장해 3타수 1안타(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시카고 컵스전에 이어 시범경기 2번째 홈런이다.

3회 선두타자로 나서 다저스의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에게 1루수 앞 땅볼로 몰려난 황재균은 1-2로 뒤진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동점 솔로포를 날렸다. 바뀐 투수 스티브 겔츠의 2구째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겼다. 6경기 만에 터진 대포였다.

7회 유격수 앞 땅볼로 몰려난 황재균은 7회말 수비에서 오스틴 슬레이터와 교체됐다. 샌프란시스코는 4-2로 승리했다. 황재균의 시범경기 타율

은 0.308에서 0.313(16타수 5안타)으로 소폭 상승했다. 5안타 중 3개의 장타(홈런 2개, 2루타 1개)로 장타력을 어필하고 있다.

한편, 김현수는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의 에드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도미니카공화국대표팀을 상대로 5번 좌익수로 나서 3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1회말 2사 1·3루서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된 김현수는 3회 2사 만루서 상대 4번째 투수 에니 로메로에게 2타점 우전 적시타를 날려 팀의 선취점을 만들었다. 2-2로 맞선 6회에는 2사 후 좌전 안타를 치고 대주자 아비우리 타바레스로 교체됐다. 볼티모어는 도미니카공화국에 5-4로 승리했다. 추신수는 콜로라도전에 2번 좌익수로 선발출전해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로또 40억 당첨자! 1, 2, 3등 한번에...

—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5일만에 12억 당첨 화제!

— JTBC, MBN, 채널A 등 방송언론에 당첨금 전액기부 보도!



오정식 대표

누구나 한 번쯤 '내가 만약 로또 1등에 된다면...'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 "꿈자리가 좋아서" "이번만큼은"이라는 생각으로 로또를 구매해도 현실은 '뽕' 운이 좋아도 5등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허탈감만 항상 느끼게 된다. 이제 수학적 접근방법으로 당첨확률을 높여 '로또 당첨은 운이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예측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꾸준히 로또 1등을 배출, 로또 마니아들에게 '온라인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로또 분석 전문 업체 '로또플레이'(대표번호:1666-6645)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로또플레이는 국내 최단기간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총 173회 배출, 2등 총 854회 배출, 3등은 총 26,761회를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영수증과 거래내역서까지 홈페이지(LOTTOPLAY.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최근엔 로또 정보업체 로또플레이의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705회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예측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

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전문 업체다. 정모 씨(47세/여)는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하고 예상번호를 문자로 제공받은 지 5일 만에 로또 1등(12억 6천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고, 제 641회차에서는 인기 레이싱 모텔이 로또 2등에 당첨된 비결이 바로 예상번호를 제공해 준 '로또플레이'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하

신 회원님들께 통계기반(26단계 필터링)으로 만들어진 1등 예측시스템을 통해 예상번호를 매주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 / 수당 변경가능)

한편 로또플레이는 실제 1등 배출 기념 최대 70% 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최대 70% 할인 가입비: 6개월 49,000원/1년 69,000원/3년 124,000원)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 회차    | 705           | 1등            | 2등            | 3등            | 4등          | 5등            |
|-------|---------------|---------------|---------------|---------------|-------------|---------------|
| 당첨금액  | 3,993,097,144 | 1,472,653,414 | 2,708,376,814 | 3,993,092,144 | 116,792,720 | 2,708,376,814 |
| 소 득 세 | 1,167,927,610 | 350,529,900   | 35,052,900    | 35,052,900    | 35,052,900  | 35,052,900    |
| 세금합계  | 1,284,720,330 | 385,582,890   | 385,582,890   | 385,582,890   | 385,582,890 | 385,582,890   |
| 당첨금   | 2,708,376,814 | 1,087,070,524 | 2,322,793,924 | 3,617,509,254 | 76,739,830  | 2,322,793,924 |

〈로또플레이 사진제공: 40억 1등당첨 영수증〉

| 회차    | 705           | 1등            | 2등            | 3등            | 4등          | 5등            |
|-------|---------------|---------------|---------------|---------------|-------------|---------------|
| 당첨금액  | 3,993,097,144 | 1,472,653,414 | 2,708,376,814 | 3,993,092,144 | 116,792,720 | 2,708,376,814 |
| 소 득 세 | 1,167,927,610 | 350,529,900   | 35,052,900    | 35,052,900    | 35,052,900  | 35,052,900    |
| 세금합계  | 1,284,720,330 | 385,582,890   | 385,582,890   | 385,582,890   | 385,582,890 | 385,582,890   |
| 당첨금   | 2,708,376,814 | 1,087,070,524 | 2,322,793,924 | 3,617,509,254 | 76,739,830  | 2,322,793,924 |

〈로또플레이 사진제공: 12억 1등당첨 영수증〉